

제23회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말일성도 선수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9,000명의 선수 중에 말일성도들도 끼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그 지역의 수 백 명에 달하는 교회 회원들도 참가하여 외국 선수들의 안내와 통역을 도왔다.

모든 선수와 코우치 및 방문 귀빈들에 대한 보안을 지휘하는 사람은 캘리포니아주, 뉴베리 파크, 제3와드의 리차드 브렛 정 감독인데, 그는 미연방 수사국 로스앤젤레스 지국을 책임맡고 있는 특별 요원이다.

그러나 주요 관심의 대상자는 선수로 참가한 말일성도들로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스티븐 편홀름(스웨덴, 노르코핑), 원반 던지기

- 칼 킬레만(캐나다, 앨버타주 칼가리), 야구, 과거 3년 동안 캐나다 대학 야구 대회에서 득점원이었음.

- 폴 키밍즈(유타주 오렘), 10,000미터, 최근까지 세계 기록 보유자로 그의 기록은 27분 43초 7일.

- 헨리 마쉬(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야외 장애물 경주, 미국 기록 보유자로 올림픽에 세번째 참가함.

- 도우그 파디아(캘리포니아주 산렌드로), 5,000미터,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가장 우수한 다섯 주자의 한 사람.

- 로너 그리피스(몬타나주, 코밸리스), 투포환과 원반 던지기, 1932년 이래 원반 던지기에서 미국 여성으로서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 획득의 기대를 받고 있음.

- 피터 비드마(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체조, 미국 챔피언을 세 번 했으며 최근에 중공의 리닝을 물리침.

- 윌트 조벨(몬타나주 잭슨), 사격, 이번 올림픽은 그에게 있어서 여섯번째의 세계 선수권 대회이다.

소년 대회 (인천 스테이크)

인천 스테이크 소속의 각 와드, 지부 아론 신권 청년 및 청년들은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덕소 능내리에서 소년 대회를 개최하였다.

“누구든지 겸손하며 사랑이 가득하며 신앙, 소망, 자비의 덕을 지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면 어떠한 일이나 모두 삼가 조심히 행하는 자 아니면 이 사업을 도울 수 없느니라.”는 교리요 성약 12편 8절을 주제로 삼고 다양한 체육 활동과 말씀을 듣는 순서로 영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을 모두 발전시키는 모임이었다.

이번 대회는 참여한 회원들이 모든 모임과 활동을 자율적으로 진행하여 더욱 뜻깊은 모임이 되었으며 아울러 우정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었다. *



27년만에 가족 상봉



앞줄 왼쪽부터 두번째가 김미자 자매님
(김 자매의 어머니는 김 미자 자매 상봉일을 낚고 바로 돌아가셨다.)

서울 서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김 미자 자매는 지난 6월 17일에 열렸던 서 스테이크 대회에서 27년만에 가족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한 간증을 전하여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김 자매는 갓난 아기일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27년만에 고국에 선교사로 오게 되었는데 자신의 친가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었다. 그러나 김 자매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때 "높은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뿌리를 찾으리라"는 축복을 받았으며 그 축복만 믿고 백지 상태에서 가족을 찾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홀트 아동 복지회로 찾아가 그녀는 자신이 쌍둥이라는 것과 언니가 역시 미국으로 입양되어 오클라호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김 자매는 서 스테이크 부장단의 최 동헌 부장의 도움으로 가족을 상봉하게 되었다.

처음엔 그녀가 홀트 아동 복지회로 오기 전에 있었던 원주의 영아원으로 갔지만 영아원은 이미 없어진 뒤였다. 다음에는 조선일보사로 찾아가 가족을 찾는 기사를 낸 것이 인연이 되어 자신과 언니를 미국에 입양시킨 외삼촌과의 연락이 가능해졌고 수소문 끝에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며 오빠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과 만나는 큰 기쁨을 맛보았다.

김 자매는 또한 외삼촌을 비롯하여 외사촌 오빠와 외숙모 등 친척들도 만나게 되었다.

축복사의 축복문만을 굳게 믿고 신앙으로 가족과 친척을 찾은 김 미자 자매는 현재 충주에서 봉사 중이다. *

셋별 대회 (인천 스테이크 초등 협회)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의 회원들

50여명의 인천 스테이크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수원 와드에서 7월 27일부터 1박 2일 동안 이영환 부장의 감리하에 특별 활동 모임을 가졌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를 동안 생활하면서 유서 깊은 팔당산으로 경보 대회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신권 지도자들로부터 영적인 말씀을 들었으며 노년의 모임과 무도회도 가졌다. *

광주 스테이크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



광주 스테이크 신권 지도자들

광주 스테이크는 "내가 올 때까지 충실하라"(교성 27:18)는 말씀을 주체로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지도자 훈련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박 하천 스테이크 부장은 "신권 역원들이 간증을 키우고, 우의를 다지며,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목표에 가까이 접근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신권 지도자들은 특히 "감독의 책임" "성공적인 워드 모임" "신권 계보 사업" "부름 및 접건"에 관하여 각자 준비한 것을 발표하면서 의견을 모았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침식을 같이 하면서 느낀 우정과 간증을 잊지 못하겠다 고 신권 지도자들은 입을 모았다. *

복음 선교사 훈련 일정 (한국 선교사 훈련원)

한국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름을 받은 모든 선교사들의 훈련 일정

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1984년 12월 3일자로 부름을 받은 선교사는 11월 19일 오후 1시까지 훈련원에 도착해야 한다.

—훈련 일정—

1984년

9월 24일(월)—28일(금)

10월 22일(월)—26일(금)

11월 19일(월)—23일(금)

12월 17일(월)—21일(금)

1985년

1월 21일(월)—25일(금)

2월 18일(월)—22일(금)

3월 18일(월)—22일(금)

4월 22일(월)—26일(금) *

조 인식 장로 부부 귀환 후 재부름 받음



한국 최초의 부부 선교사인 조 인식 장로와 지 용자 자매가 일년반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귀환하였다.

그들은 1982년 9월 부산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봉사하다가 1984년 4월 4일에 해임되었으며 다시 1984년 9월 18일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봉사 중이다.

조 장로 부부는 복음 선교사로서의 임무는 물론이고 비활동화된 회원들을 강화시키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았으며 서전주 지부장으로도 일하였다. *